

은사들을 주시는 분과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의 구성 요소들

10/06 월요일

아침의 누림

엡 4:7-8

7 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8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이들을 포로로 이끌어 가셨다가, 사람들에게 은사들로 주셨습니다.”

고전 12:14, 18, 20

14 몸은 한 지체만이 아니라 많은 지체입니다.

18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분께서 뜻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각각 몸 안에 두셨습니다.

20 그러나 이제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롬 12:4-5

4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고후 2:14

14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개선 행진 가운데 이끄시며, 어디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십니다.

에베소서 4 장 7 절부터 16 절까지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시는 분으로 제시되신다. 은사들을 주시는 분이 되시기 위해 그리스도는 우주 안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통과하심으로 모든

것을 총만하게 하셔야 했다. 그리스도는 육체 되심과 죽음을 통해, 우주 안에서 가장 높은 곳인 하늘에서 우주 안에서 가장 낮은 곳인 음부로 내려오셨다. 또한 그리스도는 부활과 승천을 통해 음부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내려오심과 올라가심을 통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총만하게 하시는 분이 되셨다. ... 그리스도는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통과하시고 부활과 승천 안으로 들어가시어, 죄와 죽음과 같은 우주 안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정복하셨다. 특별히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을 정복하시고 그의 어둠의 세력을 멸망시키셨으며, 사탄의 왕국에 사로잡혀 있던,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을 사탄의 손에서부터 포로로 이끌어 내셨다.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안으로 나누어 주셨고, 승천 안에서 패배한 원수들의 행렬, 즉 그분의 개선 행진의 대열 안에서 이러한 포로들을 이끌고 가셨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우주적인 왕래와 원수에 대한 그분의 승리와 그분의 개선 행진에 의해, 그분의 몸에게 은사를 주는 분이 되실 자격을 얻으셨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1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40, 219-22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원래 이 포로들은 모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에게 사로잡혔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내려오시고 올라가심으로 사탄을 패배시키시고 사탄에게 사로잡힌 그들을 되찾으시어, 그들을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살리시고, 그분의 개선 행진 즉 그분의 승리를 축하하는 행진 안에 있는

포로들로 만드셨다. 그런 후 그리스도는 그들을 몸의 건축을 위해 몸에게 은사들로 주셨다. 이러한 은사들은 사도들, 신언자들, 복음 전파자들, 목자들 및 교사들을 포함한다.

그리스도께서 높은 곳 곧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것은 그분의 여정의 마지막이 아니었다. 올라가신 후에 그분은 우리 영 안으로 내려오셨다. ... 오늘날 그리스도는 여전히 여행하고 계신다. 즉, 그분은 아직도 올라가고 내려오고 계신다. 그러나 이제 그분의 여행은 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 ... 우리가 내려가 있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신다. 하루 중에도 여러 차례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 하늘로 이끌릴 수 있다.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시고 올라가시며 올라가시고 내려오신다는 것이다. 그분은 언제나 변함없는 분이시지만, 정지되어 계시지 않는다. 반대로 그분은 우리 안에서 많은 여행을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신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분은 하늘에 계시는가, 땅에 계시는가? ... 사실상 그리스도는 모든 곳에 계신다. ... 그분은 모든 것을 총만하게 하시려고 내려오시고 올라가셨다(엡 4:9-10). ... 그리스도는 그분의 내려오심과 올라가심을 통해서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총만하게 하실 것이다.

많은 믿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 기능이 조금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아직 은사들로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서 내려오시고 올라가실 때 그들을 사로잡으시고 정복하시며 그분의 몸을 위한 은사들로 조성하신다.

에베소서 4 장 8 절에는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계시되어 있는데, 그 원칙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패배시키시고 사로잡으신 이후에야, 패배한 원수들의 행렬 안에서 그들을 그분의 포로로 하늘들로 이끌어 가셨고 그분의 몸에게 은사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다. ...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분의 모든 원수를 패배시키셨으므로, 우주 안에서 승리를 거두시고 우주 안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실 입지를 얻으셨다. 그러나 우리가 체험에서 그분께 정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안에서는 승리하지 못하시고 입지를 얻지 못하셨을 것이다. 우리가 몸을 위한 은사로서 기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께 정복당하고 굴복되어야 한다. ... 우리가 기꺼이 그리스도께 정복당하고 사로잡힐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분의 몸을 위한 은사들로 세우실 입지를 얻으실 것이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1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리 — 서신서들, 메시지 340, 220, 222-223, 226-22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1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리 — 서신서들, 메시지 340

10/07 화요일

아침의 누리

엡 4:11-12, 13

11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12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3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딤후 4:11-12

11 그대는 그러한 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12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히려 말과 행동과 사랑과 믿음과 순수함에 있어서 믿는 이들에게 본이 되십시오.

마 16:18

18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엡 4:15-16

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마 24:45

45 신실하고 현명한 노예가 되어, 주인이 맡긴 집안 식구들에게 제때에 양식을 나눠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든 성도는 크든 작든 교회에게 은사이고, 몸의 모든 지체는 몸에게 은사이다. ... 우리는

절대로 우리 자신이 몸에게 유익을 주는 은사가 되기에 너무 작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이 말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듣는 기독교의 실행은

은사들을 손상하고 성도들의 기능을 죽인다. 교파 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기도조차 할 줄 모르는 이유는 성직자-평신도 제도 때문에 그들의 기능이 소멸되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성경의 계시에 따르면, 모든 믿는 이는 살아 있고 기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야 한다.(과정을 거쳐 분배되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기적인 건축, 3 장, 51-5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그리스도는 그분의 내려오심과 올라가심을 통해 우리를 신약의 제사장들이 되게 하신다.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몸에게 은사로 주셨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가 은사인지 아닌지를 묻는다면, 우리 각 사람은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은사입니다.”라고 선포해야 한다.

교회의 내재적인 건축은 머리께서 주신 은사들, 곧 사도들과 신언자들과 복음 전파자들과 목자들 및 교사들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함으로써 이루어진다(엡 4:11-12). 이러한 은사들은 바울이나 베드로나 마르틴 루터나 존 넬슨 다비 등과 같은 특별한 은사들이다. 머리께서 주신 이러한 은사들은 각 지방의 교회들 안에 있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고전 12:28, 행 13:1). 특별한 은사들이 집회에서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에게 물을 주는 것이다(고전 3:6 상).

은사들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이다(엡 4:12). 이러한 온전하게 함은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들이 세 가지 것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그것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는 것,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는 것, 그리스도의 총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엡 4:13).

에베소서 4 장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성도들을 은사가 되게 하시고 이 은사들을 교회에게 주심으로써 교회를 건축하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이것은 머리께서 교회를 직접 건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 준다. 더욱이 머리께서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은사 있는 사람들 역시 직접 교회를 건축하지 않는다. 그들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런 다음 성도들이 직접 건축하는 일을 한다.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수년 동안물 줌과 온전하게 함을 받았고, 이제 각자의 지방에서 교회를 직접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

바울이 에베소서 4 장 14 절에서 표현한 갈망은 성도들이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함으로,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어떤 책임도 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될 것이다.

어린아이가 되는 대신에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한다(엡 4:15). 참된 것을 붙잡는 것은 실재인 것을 붙잡는 것이다. 에베소서 전체에 따르면,

우주 안에서 실재인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이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이 두 가지를 붙잡음으로써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한다.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는 것이 바로 건축하는 것이다. 자라는 것이 곧 건축하는 것이다.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고, 그런 다음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무언가가 나온다. ‘그리스도 안으로’는 우리의 성장을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에게서’는 우리의 기능 곧 우리의 유용성을 위한 것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기능 곧 우리의 유용성을 위한 근원이신 그분에게서 나온다. (과정을 거쳐 분배되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기적인 건축, 3 장, 52-54, 56-5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과정을 거쳐 분배되는 삼일 하나님의 유기체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기적인 건축, 3 장

10/08 수요일

아침의 누림

엡 6:11, 13-14

11 마귀의 계략에 대항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1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악한 날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모든 것을 다 처리한 후에도 서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14 그런즉 서서, 진리를 여러분의 허리띠로 두르고, 의의 가슴받이를 착용하고,

엡 5:2, 8, 15

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어, 달콤한 향기가 나는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8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

15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살펴서, 지혜 없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하여,

요일 5:4, 18

4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18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자신을 지키므로, 악한 자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엡 4:20-21

20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21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에베소서 6 장 10 절부터 20 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전투 장비의 구성 요소이심을 계시한다. 성경의 이 부분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는 전투원으로 계시된다. 전투원인 교회는 권능뿐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전투장비가 필요하다.

교회는 단체적인 전투원이며, 믿는 이들은 이 유일한 전투원의 부분들이다. 개인적인

믿는 이가 아니라 단체적인 전투원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장비로 무장할 수 있다. 우리는 개인들로서가 아니라, 몸 안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1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리 — 서신서들, 메시지 344, 28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라는 말은 명령이자 지시이다. ... 우리는 의지를 사용하여, 전투 장비를 입으라는 그분의 명령에 협력해야 한다.

권능을 갖고 계신 주님은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어야 하는 전투 장비이시다. 몸인 우리는 우리의 전투 장비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입어야 한다. 영적인 전쟁에서 싸우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이신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

허리띠로 두르는 것(엡 6:14)은 우리 온 존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온 존재는 진리로 강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화되는 것은 앉아 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 있기 위한 것이다.

에베소서 4 장에 있는 ‘진리’라는 단어의 용법에 따르면(15, 21, 24-25 절), 여기에서 ‘진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실재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곧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가 깨닫고 체험한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살아 나타낸 그리스도 자신이다(요 14:6). 그러한 진리 곧 실재가 영적 전쟁을 위해 우리 온 존재를 강하게 하는 허리띠이다. 우리의 생활에는 반드시 원칙과 표준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생활에서 실지적으로 표현되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매일의 생활에서 우리가 느슨하다면 우리는 어둠의 세력들에 대항하여 서 있지 못할 것이다. 서 있기 위해 매일의 생활에서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원칙을 따라야 하고, 진리의 표준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한 생활은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 매일의 행함의 원칙과 생활의 표준과 생활의 본으로서 표현되시는 것이다.

그러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 진리를 허리띠로 둘렀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공격과 반대에 맞설 수 있는 이들이다. ...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매일의 생활과 행함에서 표현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는 두를 허리띠가 없을 것이고, 원수에게 대항하여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반대나 싸움에 맞설 능력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위해 허리에 두르는 진리는 사실상 우리가 체험한 그리스도이다. 빌립보서 1 장 21 절에서 바울은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라고 말한다. 바울이 살아 낸 이 그리스도께서 그의 진리의 허리띠이셨다. 이 그리스도는 바울의 매일의 행함에서 표현되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셨다. 바울의 생활은 그리스도의 본과 같은 형상을 이루었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반대와 적대적인 환경에 맞설 힘이 있었다. 바울은 진리를 그의 허리띠로 둘렀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에베소서 6 장 14 절에서 의의 가슴받이는 가슴으로 상징되는 우리의 양심을 보호한다. 사탄은 우리를 비난하는 자이다. 사탄에게 대항해 싸울 때 우리에게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양심(행 24:16)이 필요하다. 우리가 자신의 양심이 아무리 선하다고 느낄지라도, 우리의 양심은 의의 가슴받이로 보호받아야

한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에 올바른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다면 사탄은 우리를 비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양심에 구멍이 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담대함이 모두 새어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원수가 비난할 때 우리를 보호해주는 의의 덮개가 필요하다. 그러한 의는 바로 그리스도이다(고전 1:30).(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1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리 — 서신서들, 메시지 344, 282-28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1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리 — 서신서들, 메시지 344

10/09 목요일

아침의 누리

히 9:14

14 더욱이 영원하신 영을 통하여 흠이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의 양심을 얼마나 정결하게 하겠습니까?

엡 6:15

15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를 신발로 삼아 발에 신고,

계 12:11

11 그들은 어린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며,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엡 2:13-14, 15-17

13 그러나 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14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적대감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으며,

15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16 또한 적대감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7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에게 화평을 복음으로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던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복음으로 전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거리낌 없는 양심, 구멍이 없는 양심을 가져야 한다. ...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양심,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갖기 위해 우리 양심을 처리해야 한다. 또한 우리 양심을 보호해 주는 의의 가슴받이를 착용해야 한다.

요한계시록 12 장 11 절은 “그들은 어린양의 피(로) ... 그를 이겼으며”라고 말한다. 어린양의 피로 덮는 것은 주로 의의 가슴받이를 착용하는 것이다. 의는 피 안에 있고, 피로 덮는 것이 가슴받이이다. ... 우리가 어둠의 세력인 사탄과 맞서 싸우려고 할 때마다, 그의 비난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매우 예민해진다. 이러한 느낌은 사실상 양심의 예민함이 아니라 사탄이 비난한 결과이다. 즉시 그러한 비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나는 나의 온전함에 의해서나 심지어 거리낌 없는 양심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린양의 피에 의해서 비난하는 자인 사탄을 이긴다. 나는 의의

가슴받이로 사탄의 비난들로부터 보호받는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1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44, 28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의 양심을 보호하고 사탄의 비난에서 우리를 지키는 의는 그리스도 자신이다. ... 체험에서 우리는 피를 그리스도와 분리할 수 없다. ... 그분의 피의 씻음 아래서 그분은 우리의 의가 되신다.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 저의 의이신 당신 자신으로 저를 덮어 주십시오. 주님, 저는 당신의 피 아래 숨습니다.”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비난자에게 “사탄아, 나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어린양의 이기는 피로 너를 이긴다.”라고 말해야 한다.

우리는 전쟁에서 견고하게 서 있기 위해 발에 신발을 신어야 한다(엡 6:15). 이것은 길을 가거나 경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하기 위한 것이다.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라는 표현은 화평의 복음이 세워진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고, 사람들 사이에도 화평을 이루셨다. 이 화평은 우리의 복음이 되었다(엡 2:13-17). 이 화평의 복음은 견고한 기초로 세워졌고, 이 견고한 기초는 우리 발에 신을 수 있도록 예비된 것이다. ... 그러한 견고한 기초를 위한 화평 또한 그리스도이다(엡 2:14).

에베소서 6 장 15 절에 있는 바울의 사상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여기에서의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에베소서 2 장 15 절과 16 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화평을 성취하시어 이방인들이 유대인 믿는 이들을 접촉할 수 있게 하였고,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게 하셨다. 이 화평은 기쁜 소식 곧 좋은 소식이고, 달리 말하면 복음이다. 이런 이유로 2 장 17 절은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한다.

에베소서 6 장 15 절에서 말한 화평의 복음은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방인 믿는 이들이 유대인 믿는 이들과 하나 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화평이다. 이 화평이 우리의 복음이다. 이러한 화평에는 견고한 기초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서기 위한 안전한 발판이다.

영적 전쟁은 씨름 경기를 하는 것이다. ... 우리가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를 신발로 삼아 발에 신는다면 원수의 모든 공격에 대항할 수 있다. ...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악한 날에 대항할 수 있고 서 있을 수 있다.

보통 화평은 전쟁에 반대된다. 우리에게 화평이 있을 때에는 싸움이 없고, 우리가 싸울 때에는 화평이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화평을 가지고 싸울 뿐 아니라 화평 안에서 싸운다. ... 우리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평이나 우리와 다른 믿는 이들 사이의 화평을 잃는다면 (골 3:15) 싸울 입지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과 하나 되기 위한 화평이시다. 이러한 화평은 우리가 원수와 맞서 굳게 설 수 있게 하는 견고한 기초이다. (신약의 결론, 개정증보판, 21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44, 285-28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38, 41-42, 63

10/10 금요일

아침의 누림엡 6:16

16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그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꺼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히 12:2

2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분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살전 5:24

24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께서 또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요일 1:9

9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갈 2:20

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생명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안에서 사는 생명입니다.

롬 6:6

6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서 섬기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롬 8:28, 38-39

28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함으로써 선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38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들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허리띠로 두르고, 의로 양심을 보호하고, 화평을 신발로 삼아 신고, 믿음의 방패로 우리 온 존재를 보호해야 한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공로나 장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막 11:22). 하나님은 참되시고 살아 계시며 현존하시고 유용하시다. 우리는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야 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뢰해야 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선하시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롬 8:31-39).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거나 우리에게 해를 가하시거나 우리가 손실을 당하게 하실 의도가 없으시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1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44, 287-288 쪽)

오늘의 귀를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것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한다. ...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야고보서 1 장 17 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변하는 것도 없으시고 회전함으로 생기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시며(딤후 1:2), 자신이 하신 말씀에 항상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실 뿐 아니라 능력 있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엡 3:20). ... 우리가 믿어야 하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지 않으실 수 없다. 그분께서 더 말씀하실수록, 그분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실 책임이 더 있으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말씀하셨고, 당신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주님, 당신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의무가 있으십니다.”라고 말씀드려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신실한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므로 뜻이 있으시다(엡 1:9, 11).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뜻은 항상 긍정적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행복이나 환경을 주의하지 말아야 한다. ... 우리의 환경은 변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한다(롬 9:19-29). ...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심지어 우리의 잘못도 선을 이루게 한다. ... 우리는 잘못했을 때 회개해야 한다. 그러나 후회할 필요는 없다. ... 우리는 실수나

결점에 대해 회개한 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불화살은 사탄의 유혹, 제안, 의심, 질문, 거짓말, 공격 등이다. 모든 유혹이 속임수이고 거짓 약속이다. 사탄은 종종 우리에게 제안을 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지 않는다면 마귀의 제안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덮개가 없을 것이다. ... 많은 때 사탄은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하지만, 믿음의 방패는 이러한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지켜 준다. 우리가 사탄의 불화살을 막는 믿음을 가지려면,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가진 합당한 영이 필요하다. ... 우리의 체험에 따르면,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믿음(롬 10:10)은 주로 의지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다. ...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야 한다.

에베소서 6 장 17 절에서 바울은 이어서 “구원의 투구(를) ... 받아들이십시오.”라고 말한다. 이것은 악한 자가 우리 안으로 쏘는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투구, 그러한 덮개가 하나님의 구원이다. 사탄은 위협, 근심, 걱정, 그 밖에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우리 생각 속에 주입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덮개이다. 이러한 구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체험하는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다(요 16:33).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1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44, 288-29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64-66

10/11 토요일

아침의 누림

엡 6:17-18

17 그리고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구원의 투구와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늘 깨어 있으며, 모든 성도들을 두고 간구하십시오.

요 6:63

63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히 4:12

12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효력이 있으며 양날이 선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 찢러 쪼개고, 심지어 마음의 생각과 의도도 분별해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 4:4

4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골 4:2

2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빌 4:6

6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갈 4:6

6 여러분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 주셨으며, 아들의 영은 “아바 아버지!”라고 외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의 여섯 가지 항목 중에서 그 영의 검만이 유일하게 원수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엡 6:17). 우리는 검으로 원수를 산산조각 낼 수 있다. 그러나 먼저 검을 드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우리는 반드시 먼저 허리띠를 두르고 가슴받이를 착용하고 신발을 신은 후, 믿음의 방패를 잡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 우리가 완전히 보호되고 구원을 우리의 몫으로 가질 때 그 영의 검을 받아들일 것이다. 에베소서 6 장 17 절의 문장 구조는, 검이 아니라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그 영과 말씀은 둘 다 그리스도이다(고후 3:17, 계 19:13). 그 영이시며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원수를 패배시키고 죽이는 공격 무기인 검을 주신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1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44, 29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말씀은 성경이다. 그러나 이 말씀이 단지 인쇄된 문자에 불과하다면 그 영도 아니고 검도 아니다. 에베소서 6 장 17 절에서 ‘말씀’에 대한 헬라어 단어는 어떤 상황에서 그 영께서 그 순간 말씀해 주시는 즉각적인 말씀인 ‘레마’이다. 성경에 항상 있는 말씀인 ‘로고스’가 즉각적인 말씀인 ‘레마’가 될 때, 이 ‘레마’가 그 영이 될 것이다. ...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절을 거듭거듭 읽어도 문자에 속한 말씀인 ‘로고스’로만 남을 수 있다. 그러한 말씀은 아무것도 죽일 수 없지만, 어느 날 그 영께서 이 절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우리에게 그 영께서 현재 즉각적으로 하시는 살아 있는 말씀인 ‘레마’가 된다. ...

이런 이유로 요한복음 6 장 63 절에서 주 예수님은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말’에 대한 헬라어 단어도 레마이다. 즉각적인 현재의 말씀은 그 영이다. 이러한 말씀이 검이다. 그러므로 검과 그 영과 말씀은 하나이다.

에베소서 6 장 17 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라는 표현은 ‘받아들이십시오’를 수식한다. 우리는 기도로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이것은 우리가 온갖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가 여섯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았다. 기도는 일곱 번째 항목으로 간주될 수 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를 적용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전투 장비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되는 것은 바로 기도에 의해서이다.

요약하면, 우리를 덮는 하나님의 전투 장비는 우리의 진리와 의와 화평과 믿음과 구원으로서 우리에게 실재화되신 그리스도이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받이,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검인 그 영 곧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체험하는 그리스도의 여러 방면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하고, 우리의 양심을 보호해 주는 의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하며, 영적 전쟁을 하도록 우리의 입지를 강하게 해 주는 화평의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하고, 우리 온 존재를 원수의 공격에서 막아 주는 믿음의 방패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하며, 사탄이 우리 안으로 주입하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에 맞서 우리의 생각을 보호해 주는 구원의 투구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하고, 원수를 죽이는 그 영의 검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이 모든 방면이 기도에 의해 우리에게 적용된다. 영적 전쟁을 하려면 우리는 신성한 전투 장비의 구성 요소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와 그분의 강한 권능 안에서 굳세어져야 한다. 단체적인 전투원으로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발전기이신 그리스도로 내적으로 굳세어져야 하고,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전투 장비의 구성 요소이신 그리스도를 입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영적 전쟁을 하여 하나님의 원수를 패배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전투 장비의 구성 요소이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기를 힘쓰기 바란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1 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44, 291-293, 29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92, 97

10/12 주일

아침의 누림

벤전 5:5-11

5 마찬가지로 청년들은 연장한 이들에게 복종하고, 모두가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이들을 대적하시나,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6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도록 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7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8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대적 마귀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삼킬 사람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9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 마귀와 맞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10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직접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터를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11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엡 6:16

16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잡으십시오. 그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꺼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